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안 재 진¹⁾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내 TV 드라마에 나타난 국내 입양인 및 입양가족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지상파 3개 방송사(KBS, MBC, SBS)에서 방영된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및 일일 드라마 중 입양인이 주요인물인 드라마 24편에 등장하는 입양인 28명을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내용은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실제와 관련된 특성들이었다. 분석결과,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는 독립(사적)입양, 비밀입양 등 바람직한 입양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양자녀와 친생자녀와의 갈등, 입양인의 순탄하지 못한 삶 등 입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 동기도 아동복지적 동기가 아닌 부모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한 것(불임, 가족유지의 수단, 친생부모와의 관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입양의 일방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중매체 속에서 입양가족과 입양인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TV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입양, TV 드라마, 입양 이미지, 입양관련 특성, 내용분석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S1A5A8023386).

1)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jjahn@gachon.ac.kr)

I. 서론

현재까지 국내입양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로 알려져 있다. 물론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이유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입양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국내입양을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의 방법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외입양을 중단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 매년 10%씩 국외입양 아동수를 줄이고 있으며, 대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보면, 입양수수료 면제, 아동이 만 14세까지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과 만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의 혜택 제공 등이 있으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입양가정에는 별도의 양육보조금을 지불한다(보건복지부, 2014a).¹⁾ 그러나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입양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보건복지부, 2008a, 2014b)에 따르면, 2007년에 1,388건이었던 국내입양은 2013년에 68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 보호조치된 요보호 아동수가 8,861명에서 6,020명으로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양육시설 입소 아동 수는 3,245명에서 3,257명으로 오히려 증가(보건복지부, 2008b,

2014c)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입양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이 저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식을 들고 있다(허선애, 2008; 배태순, 2004; 고정자, 2004; 이갑숙, 2008; 정용주, 김한배, 2010에서 재인용).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가 매우 강해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속담이 있을 정도로 수양자녀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또한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많은 입양가족들이 주위사람들은 물론 입양아동 본인에게까지도 입양사실을 숨기는 비밀입양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비밀입양 관행은 입양아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고,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입양사실이 주변에 공개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배태순, 허남순, 권지성, 2006).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입양전문가들과 한국입양홍보회(MPAK)를 비롯한 입양관련 단체에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의 건전한 적응을 위해 공개입양을 장려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입양홍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은 입양을 ‘가슴으로 넣은 사랑’, ‘입양은 기쁨’, ‘또 다른 출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 등으로 묘사하며 입양은 가

1)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중증의 경우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의 경우 월 551천원을 지급함.

죽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공개입양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방송매체에 출현하여 행복하고 긍정적인 입양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입양홍보회(MPAK)에서는 반편견입양교육 강사를 훈련,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에 파견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입양사업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설정하고,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규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50.6%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들고 있어(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입양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입양인으로서 아동의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인 성장과정에서 입양아동의 입양 관련 지식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11), 입양에 대한 편견은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입양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들과는 별

개로, 주요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들에서는 출생의 비밀 등이 줄거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입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형성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Greenberg, Mastro, & Brand, 2002; 양문희, 강형철, 2005에서 재인용).

실제로 TV 속에서 장애인을 프레임(framing)하는 방식에 따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갖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이정, 2009), TV 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따라 소외계층을 오히려 더 소외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인성, 1999).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2005년 4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라마를 본 후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보다 2배 더 높은 84.4%로 나타났고, 드라마(23.1%)는 오락 프로그램(24.4%) 다음으로 방송에서 많이 편견을 조장하는 장르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숙민, 박진화, 김문수, 2012에서 재인용).

외국의 경우 미디어가 입양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입양전문가, 입양부모, 예비입양부모 등)은 다양한 정보원천을 통해 입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입양에 대해 듣게 되는데, 불행히도 대중매체는

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입양을 다루며, 이러한 미디어의 왜곡은 입양가족, 입양인, 그리고 입양절차에 대한 신화를 강화한다(Waggenspack, 1998). 실제로 Creedy와 Saidman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Law & Order)와 시트콤(Dharma & Greg)에서는 입양에 대한 지극히 왜곡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입양된 영아의 사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입양부모는 일급살인 및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 재판과정에서 실상은 입양부모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아동을 러시아에서 입양했던 부모가 아이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파양한 후 입양중개인이 새로운 입양부모를 속이고 아동을 입양 보낸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은 입양부모를 잠재적인 살인자이자 아동학대 가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 아동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처럼 여긴다는 점, 입양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린다는 점 등에서 입양에 대한 신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실제로 입양활동가 집단에서는 입양가족 또는 입양절차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통해 입양을 둘러싼 신화를 강화해 온 이들 드라마와 시트콤의 제작진들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입양에 대한 잘못된 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들의 편지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반 대중과 잠재적 입양부모들에게 불필요하게 겁을 줌으로써 입양에 상당한 장애물을 형성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쓰여 있다(Creedy & Saidman, 1999).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방영되었던 <왕꽃

선녀님>이라는 드라마에서 입양인을 ‘개구멍 받이’라고 묘사하는 등, 입양인을 비하하고, 입양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입양관련 기관들과 입양부모들이 방송국 앞에서 방송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04. 8. 26). 이 사건은 결국 제작진이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공중파를 통한 방송은 전국민이 노출되기 쉽고, 드라마의 경우 장기간동안 시청을 하게 되며, 무의식적으로 줄거리 속에 내재된 편견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타의 노력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입양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은 대부분 미디어 속의 폭력성(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2007; 한균태, 하승태, 서영남, 조의현, 2007), 선정성(한균태, 서영남, 최수진, 2007) 등, 미디어의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TV 드라마 속에 나타난 특정 집단에 대한 묘사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권영애 등, 2009; 임미림, 1995), 유아교사(이현숙, 조형숙, 2008), 법률가(이재협, 2010), 직장 내 여성관리자 및 경영자(양문희, 강형철, 2005) 등 특정 직업군의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사회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노인(전성희, 2011),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최혜순, 남효순, 2011), 장애인(허숙민 등, 2012)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반

면, 미디어에 나타난 입양인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정해린, 안은미, 최혜림 및 정익중(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정해린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11년 방영되었던 입양 소재 드라마 중 7편을 선정하여,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과 입양아, 입양부모 및 친생부모의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입양의 이미지는 ‘혈연주의’와 ‘비밀주의’, 입양아의 이미지는 ‘그리운 생모’, ‘성장기 시련’, ‘평탄하지 않은 삶’, 입양부모의 이미지는 ‘입양아 학대’, ‘입양아를 경제적으로 이용’, ‘아이는 가족유지 수단’, ‘부유층이 입양’, 친생부모의 이미지는 ‘입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함’, ‘친자식 외면’, ‘가난 때문에 입양보냄’, ‘홀어머니나 미혼모가 결혼을 위해 입양보냄’의 분석단위를 각각 도출한 바 있다. 정해린 등(2012)의 연구는 국내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2011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7편에 국한되어 있고,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 드라마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담고 있기는 하나, 국내입양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 경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내용분석은 제한된 편수의 드라마를 심층분석하는 질적 내용분석과 다수의 드라마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를 살펴보는 양적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의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TV 드라마에 나타난 국내 입양인 및 입양가족의 전

반적인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대중매체 중 하나인 TV 드라마가 국민의 입양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실제와 관련된 특성은 어떠한가?
2.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가족의 특성 및 이미지는 어떠한가?
3.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상태 등)은 어떠한가?
4.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드라마의 선정 및 분석

분석대상 TV 드라마의 표집은 2000년대 이후 지상파 3개 방송사(KBS, MBC, SBS)에서 방영되었던 연속극 중 입양인이 비중있는 등장인물로 나오는 드라마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드라마는 VO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드라마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연구목적상 시대극과 사극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시청률이 높고, 시청자 폭이 넓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및 일일 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입양과 국

내입양은 여러 제반 특성 및 일반인의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입양인이 나오는 드라마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 드라마는 2000년~2012년 상반기까지 지상파 3개 방송사에서 방영된 TV 드라마이며,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기관을 통해 공식 입양된 사례를 다룬 드라마만을 표집할 계획이었으나, 드라마에 대한 검토결과, 기관 입양보다는 이웃이나 지인이 키워달라고 맡기거나, 우연한 사건을 통해 친부모가 아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입양의 범위를 넓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는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다. 단,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 친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 사례를 다룬 드라마(‘반짝반짝 빛나는’ 등)는 통상적 의미의 입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4편의 드라마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신들의 만찬’과 ‘미나’, ‘패션 70’s’와 ‘왕꽃선녀님’의 경우 한 드라마에서 입양인 2명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드라마에 등장한 입양인 28명과 이들이 속한 입양 가족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24편의 드라마 중 입양인이 주요인물이면서 동시에 입양이 중요한 사건의 소재로 다루어진 드라마는 10편(41.7%)이었으며, 입양인이 주요인물이지는 하나 입양은 배경정보일 뿐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12편(50.0%)이었고, 나머지 두 편은 드라마 중반 이후 입양사실이 밝혀지면서 입양이 주요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이다(소문난 칠공주, 해변으로 가요).

분석은 드라마의 홈페이지와 VOD(다시보기) 서비스, 대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드라마의 내용이 길고 여러 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드라마의 전체 편수에

표 1. 분석대상 TV 드라마

번호	방송사	방영 시기	장르	드라마 제목
1	MBC	2012	주말	신들의 만찬
2	SBS	2011	주말	내일이 오면
3	MBC	2010	일일	황금물고기
4	SBS	2009	수목	카인과 아벨
5	KBS	2008	수목	태양의 여자
6	MBC	2007	수목	개와 늑대의 시간
7	MBC	2007	주말	문희
8	KBS	2007	일일	하늘만큼 땅만큼
9	KBS	2007	주말	행복한 여자
10	MBC	2006	월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1	KBS	2006	주말	소문난 칠공주
12	MBC	2006	수목	어느 멋진 날
13	MBC	2006	주말	진짜 진짜 좋아해
14	KBS	2005	일일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5	SBS	2005	주말	봄날
16	KBS	2005	수목	부활
17	SBS	2005	월화	패션 70’s
18	SBS	2005	주말	하늘이시여
19	SBS	2005	주말	해변으로 가요
20	SBS	2004	주말	매직
21	MBC	2004	일일	왕꽃선녀님
22	SBS	2004	수목	형수님은 열아홉
23	KBS	2003	월화	상두야 학교가자
24	KBS	2001	월화	미나

서 약 40%에 해당하는 회차를 분석하였으며, 일일드라마의 경우 편수가 100회 이상인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드라마의 25% 정도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주인공에 대한 인물묘사나 삶의 과정이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초반, 중반, 중반을 끝고루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드라마의 장르는 월화드라마가 4편, 수목드라마가 6편, 일일드라마 4편, 주말드라마가 10편으로 주말드라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방송사별로는 MBC, SBS, KBS의 드라마가 모두 8편씩 고르게 포함되었다. 방영시기는 2005년도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4년과 2006년, 2007년에 방영된 드라마가 각각 4편씩이었다. 2000년대 중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공개입양가정들이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회적으로 입양에 관한 논란이 증폭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주춤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재도 상대적으로 뜸하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드라마의 목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코더훈련 및 코더간 신뢰도 산출

양적 내용분석은 아동복지학 전공 대학원생인 두 명의 코더들이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먼저 분석대상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주인공에 대해 파악하였다. 드라마 내용분석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 분석대상 드라마 중 먼저 6편(신들의 만찬, 태양의 여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이시여, 왕꽃선녀님, 상두야 학교

가자)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고, 코더간 신뢰도 및 범주의 포괄성을 검토하였다. 문항 중 일부는 특성상 포괄적인 범주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타’ 범주를 포함하고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고, 추후 동일한 항목이 추가적으로 제시되면 범주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더 간 분류의 일치도가 80%에 이를 때까지 훈련 및 코딩북 수정이 지속되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분석은 각 드라마의 초반, 중반, 후반부가 끝고루 포함되도록 약 40%에 해당하는 분량을 선정한 뒤, 각각의 편마다 해당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코딩북에 나타난 범주에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드라마 초반, 중반, 후반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 편수에서 동일한 범주로 파악되는 경우 이를 입양인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3. 자문회의 실시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미디어 내용분석 분야의 해당전문가를 모시고 총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본격적인 연구실행에 앞서, 전반적인 연구계획 및 예비범주화 작업방법에 대한 1차 자문회의가 2012년 7월에 열렸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내용분석의 방법과 샘플링 방법 및 예비코딩범주를 보완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드라마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편수를 드라마의 초반, 중반, 후반이 끝고루 포함하도록 샘플링하되, 편수가 많은 일일드라마는 25% 정도를 샘플링하였다. 예를 들

면 20편짜리 미니시리즈의 경우, 전체 드라마의 약 40%에 해당하는 9편을 분석하되, 드라마의 초반, 중반, 후반부를 각각 3편씩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장면 단위로 분석하기에는 드라마의 편수가 너무 많고, 분석단위를 드라마로 할 경우, 드라마 전개에 따른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자문위원의 우려를 반영하여, 분석단위를 드라마의 각 편으로 하여, 드라마 전개상의 변화까지도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먼저 분석대상 드라마 6편을 분석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예비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작업을 진행해가면서 범주를 수정, 보완하였다. 2013년 3월의 2차 자문회의에서는 분석내용 및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방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식적인 자문회의 외에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등 서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진행과정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입양관련 특성

국내입양 관련 특성으로는 입양절차와 입양 공개여부, 입양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양절차는 드라마 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미확인 사례가 14.3%였으며, 입양기관이나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공식입양이 25.0%, 그 외 아는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등의 독립(사적)입양이 60.7%를 차지했다. 또한 독립(사적)입양에는 친구나 동료의 아이를 입양하거나(카인과 아벨, 개와 늑대의 시간, 행복한 여자, 소문난 칠공주 등) 지인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문화, 하늘만큼 땅만큼 등)도 있지만, 아내 몰래 첫사랑의 아이를 입양한다든지(황금물고기), 가난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부잣집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패션 70's), 또는 죽은 아이 대신 비슷한 아이를 납치(년 어느 별에서 왔니)하는 등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형태의 입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양을 공식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인식하기보다는 우연한 사건이나 개인의 사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생사건’으로 여기는 시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2012년도 입양특례법 개정과 더불어 공식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적입양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혈연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만(지인이나 친구의 아이 등)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

한편 입양사실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입양부모 외에 본인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제외한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본인과 주변사람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은 알고 있고 주변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17.9%를

표 2.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관련 특성

구분	범주	빈도	비율
입양절차	미확인(드러나지 않음)	4	14.3
	기관입양(공식입양)	7	25.0
	독립(사적)입양	17	60.7
	합계	28	100.0
입양공개여부	본인과 주변사람 모두 알고 있음	13	46.4
	본인 모르나 주변사람 알고 있음	2	7.1
	본인 알고 있으나 주변사람 모름	5	17.9
	본인과 주변사람 모두 모름(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포함)	6	21.4
	기타	2	7.1
	합계	28	100.0
입양상황	드러나지 않음	6	21.4
	친생부모의 죽음	11	39.3
	가난	2	7.1
	홀어머니(미혼모)의 양육어려움	3	10.7
	잃어버림/우연한 사건에 의해	5	17.9
	기타	1	13.6
	합계	28	100.0
입양동기	드러나지 않음	4	14.3
	아동복지적 동기(아동이 불쌍해서)	7	25.0
	친생부모를 돕기 위해	5	17.9
	가족유지의 수단	6	21.4
	불임	5	17.9
	기타	1	3.6
	합계	28	100.0

차지했다. 즉, 본인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그러나 본인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공개입양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입양사실을 이야기

해주었기보다는 비교적 커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입양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신들의 만찬, 황금물고기, 태양의 여사, 상두야 학교가자 등)가 많았다. 오히려 본인은 입양사실을 모르나 주변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7.1%)와 본인과 주변사람 모두 모르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드라마 후반에 밝혀지는 경우 포함, 21.4%) 등 여전히 본인이 입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것으로 그려진 드라마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입양 사실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드라마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기타로는 본인이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한 경우(해변으로 가요)와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패션 70's)가 있었다.

아동이 입양된 상황에 대한 묘사로는 친생부모의 죽음이나 가장 높은 비율(39.3%)을 차지했으며, 입양 당시의 상황이 드라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21.4%나 되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입양 보낼 의도가 아니었으나 아동을 잃어버렸거나 우연한 사건(전쟁, 사고 등)에 의해 다른 가정에 가서 살게 된 경우도 17.9%를 차지했다. 반면 한부모 또는 미혼모가 키울 수 없어서 아동을 입양 보낸 경우는 전체 사례의 10.7%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입양 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90%가 미혼모(부) 자녀라는 국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TV 드라마는 입양아동들이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양되었다는 잘못된(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인식을 아동 자신에게나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쉽다. 기타 사례는 친생모가 주인공을 시장에 버렸다는 사실은 나타나지만 왜 버렸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례(진짜진짜 좋아해)이다.

입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아동의 앞날을 위해서 입양한 아동복지적 동기가 25.0%를 차지한 반면, 아동복지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입양을

한 경우가 나머지 7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죽은 자녀를 대신해서 입양 등)으로 입양을 한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고, 불임부부가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을 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친생부모를 돕기 위해 입양하는 사례가 각각 17.9%이다. 기타 사례는 자신의 아이가 부잣집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친생모가 아이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부잣집 아이를 데리고 섬에 들어가서 산 경우이다(패션 70's). 입양부모의 입양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14.3%를 차지했다.

종합하면 드라마 상에서 그려지는 입양은 아직까지도 독립(사적)입양, 비밀입양, 친생부모의 죽음이나 비극적 사건에 의한 입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모가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다.

2. 입양가족의 이미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입양가족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서로 아웅다웅할 때도 있지만 곧 다시 화해하곤 하는 평범하고 화목한 모습이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입양가족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TV에서 그려지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에서 입양부모는 입양된 아들 무영을 친아들처럼 신경쓰고 돌보는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군에서 제대하

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을 위해 곰국을 끓여 먹이려는 부모와 부모님이 함께 먹지 않으면 안 먹겠다는 아들의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나 드라마 전반에 걸쳐 입양가족이 갈등적인 가족관계로 그려지는 모습도 32.1%나 되었는데, ‘어느 멋진 날’에서 입양아는 죽은 친생자녀가 하던 피아노 치기를 강요하는 엄마와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오빠 때문에 가출하기도 하고, ‘신들의 만찬’에서는 돈 때문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자 입양부가 입양아(준영)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건 등이 표면적인 갈등으로 드러난다. 또한 입양아로 인해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면, 입양아에게 ‘네가 입양 돼 오던 그 날 이후에 모든 게 변해버렸다’고 입양아를 탓하기도 한다(카인과 아벨).

그 외에도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나 내적인 갈등이 있거나, 초반에 화목하다가 갈등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10.7%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숨겨진 갈등이 있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갈등적인 이미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입양부가 입양아에게 가족처럼 잘해주는 하지만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고, 입양아가 자신의 방에 있는 잃어버린 딸의 물건을 만지자 화를 내거나, 딸로는 입양아에게 친딸이라고 하지만 친생자녀의 사진을 보며 계속 그리워하는 모습을 입양아에게 자꾸 들키면서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해보이나, 입양자녀에게는 상처가 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신들의 만찬, 인주).

한편 극의 초반 또는 중반에 파양이 발생하는 드라마가 2건 있었는데, 파양된 이유로는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소년원에 가게 된 경우(상두야 학교가자)와 무병에 걸린 경우(왕꽃선녀님)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아니고서는 입양아동의 문제로 인해 파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또한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도 드라마 상에서 아동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쉽게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은 입양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입양인이 주요인물이지는 하나 입양가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드라마도 일부(미나, 매직) 있었으며, 기타로는 입양부는 죽고 입양모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해체가족의 모습이 나타났다(형수님은 열아홉).

한편 입양가족 내 친생자녀의 존재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친생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57.1%이다. 이 중 일부는 입양 후 출산한 경우이고(하늘이시여, 태양의 여자 등) 7.1%는 두 명의 친생자녀 중 한 명이 살아있고, 나머지 한 명이 사망한 경우(또는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이다. 또한 친생자녀가 없는 사례들(42.9%) 중에서도 7.1%는 원래 친생자녀가 있었으나 사망한 경우이다. 이처럼 친생자녀가 사망하고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죽은(또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친생자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신들의 만찬, 어느 멋진 날, 패션 70's), 이 또한 입양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표 3.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가족의 이미지

구분	범주	빈도	비율
전반적 이미지	드러나지 않음	2	7.1
	일반가정과 다를 바 없음(화목)	11	39.3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있음	9	32.1
	평범해 보이거나 내적 갈등 있음	3	10.7
	파양사례	2	7.1
	기타	1	3.6
합계		28	100.0
친생자녀의 존재	친생자녀 있음(입양 후 출산 포함)	14	50.0
	친생자녀 없음	10	35.7
	친생자녀가 있었으나 사망(또는 사망했다고 여김)	2	7.1
	친생자녀 중 한 명이 사망(또는 사망했다고 여김)	2	7.1
	합계	28	100.0
사회경제적 지위	상류층(재벌가 포함)	12	42.9
	중산층	5	17.9
	서민층	10	35.7
	빈곤층	1	3.6
	합계	28	100.0

입양은 입양부모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국내입양에서는 불임가정의 입양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간의 불화와 갈등, 경쟁 등을 소재로 다루기 위한 측면에서인지 입양가정 내에 친생자녀가 있는 것으로 설정한 드라마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입양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서 상류층이 42.9%, 서민층은 35.7%를 차지한 반면, 중산층은 17.9%에 불과했다.

3.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

입양인의 성별은 여자가 67.9%로 남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여아선호가 뚜렷한 한국의 입양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령은 20대가 78.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20대 이하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20대 주인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TV 드라마의 일반적 특성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입양인의 학력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는 28.6%였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은 전무한 반면, 고등학교 중퇴는

1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입양인의 순탄치 못한 삶을 짐작하게 한다.

입양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입양인이 갖고 있는 직업군도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의사, 요리사, 디자이너, 아나운서 등과 같은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도 25.0%나 되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속칭 ‘제비’로 불리는 한량으로 묘사되는 입양인도 있었다. 한편, 군인, 국가정보원 요원, 형사 등 공무원과 다이버, 분장사 등 특수직업군에 속한 사례도 각각 10.7%, 14.3%를 차지해서 비교적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입양인의 직업이나 학력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과 그와 대조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인물들로 양극화되어 그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일반적인 TV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차이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입양인에 대한 이미지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4. 입양인의 이미지

입양인의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입양인의 성품과 삶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입양인의 성품은 드라마 내내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기도 하고, 어떠한 사건(부모의 죽음 또는 출생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을 계기로 변화하기도 하는데, 일관되게 그려지는 경우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미지로

표 4.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특성

구분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성	9	32.1
	여성	19	67.9
	합계	28	100.0
연령	10대 이하	3	10.7
	10대 후반~20대까지	2	7.1
	20대	22	78.6
	30대	1	3.6
	합계	28	100.0
학력	드러나지 않음	14	50.0
	초등학교 재학	2	7.1
	고등학교 중퇴	3	10.7
	대학교 중퇴	1	3.6
	대학교 졸업	4	14.3
	대학원 재학	1	3.6
	대학원 졸업 이상	3	10.7
	합계	28	100.0
직업	전문직(의사)	3	10.7
	준전문직(요리사, 디자이너, 아나운서)	6	21.4
	아르바이트, 일용직	7	25.0
	회사원(관리직 포함)	2	7.1
	공무원(군인, 형사 등)	3	10.7
	초등학생	2	7.1
	특수직업군(다이버, 분장사, 가수)	4	14.3
	특정된 직업 없음(제비)	1	3.6
	합계	28	100.0

그러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46.4%). 긍정적인 이고 낙천적인 이미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쾌활하게 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한 예로 ‘형수님은 열아홉’의 유민은 재벌 2세의 딸이라는 신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혼자서 생계를 꾸리며 동생의 치료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활달하고 호탕한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냉철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품으로 그려진 경우는 17.9%이다. 예를 들면, ‘태양의 여자’에서 입양아인 지수는 어린 시절 친자인 동생이 없으면 본인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 동생을 서울역에 버리고, 커서 동생이 나타났을 때에도 입양모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시도한다. 어둡고 비관적인 성격은 14.3%로 나타나는데, 한 예로 ‘왕꽃선녀님’에서 부자집에 입양되어 자란 미영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입양부모 몰래 흡연을 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괴롭히는 등 시종일관 음울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하늘만큼 땅만큼’의 무영도 입양부모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방황하며 걷도는 모습을 보여준다.

TV드라마에서의 입양인은 이처럼 대략 긍정적인 성품과 부정적인 성품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전개과정에서 입양인의 성품이 변화한 경우(10.7%)는 모두 긍정적, 낙천적이던 입양인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냉철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

는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부활’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고 입양되어 자라지만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던 서하은은 형사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던 중 수사과정에서 친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이때부터 자신이 아닌 죽은 쌍둥이 형제로 가장하여 살아간다. 즉, 친부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다. 기타로는 희생적인 성품(가족을 위해 희생), 겉으로는 낙천적으로 보이나 혼자 있을 때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겉은 냉정하지만 내면은 따뜻한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 경우 등이 있었다.

입양인의 삶의 과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비록 돈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딸과 늘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상두야 학교가자), 입양부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면서도 요리사로 성공하기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신들의 만찬, 준영). 한편, 입양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상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25.0%로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늘 입양아로서 본인의 위치를 불안하게 여기며 입양부모 또는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입양모가 편잔을 주거나 쌀쌀맞게 대해도 늘 미소를 띠며 예의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태양의 여자), 요리사로서 입양모의 후계자가 되려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신들의 만찬, 인주) 등이 그려진다. 반면, 별다른 문제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경우는 입양인이 초등학

생으로 그려진 두 드라마(문화, 행복한 여자) 외에는 한 편 밖에 없었다(별난여자 별난남자).

즉, 입양인은 입양인이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밝고 씩씩하게 헤쳐나가거나, 또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입양인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는 입양인 자신은 바르게 살고자 하나 주위 여건상 뜻대로 되지 않거나(7.1%), 되는대로 살아가는 모습(7.1%), 또는 친생부모를 위한 복수가 삶의 주된 목표가 되는 경우(7.1%) 등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기타의 경우는 주인공이 기억상실에 걸렸다가 회

복하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를 차지하는 경우(봄날)였다.

이처럼 TV 드라마에서 입양인의 성품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인의 삶의 여정은 평범하거나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극적 재미를 위한 장치로서 드라마 주인공들의 일반적인 삶의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주인공이 입양인인 경우에는 입양인이 입양가족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중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입양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표 5.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이미지

구분	범주	빈도	비율
입양인의 성품	긍정적, 낙천적임	13	46.4
	어둡고 비관적임	4	14.3
	냉철함, 목적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음	5	17.9
	긍정적, 낙천적이었다가 냉철하게 변화	3	10.7
	기타(희생적, 이중적인 특성)	3	10.7
	합계	28	100.0
삶의 과정	바르게 살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음	2	7.1
	자신의 처지를 보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	7	25.0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감	11	39.3
	되는대로 살아감(회피, 체념)	2	7.1
	복수가 삶의 주된 목표임	2	7.1
	평탄하게 잘 살아감	3	10.7
	기타	1	3.6
	합계	28	1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TV 드라마에 나타난 국내 입양인 및 입양가족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국내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지상파 3개 방송사(KBS, MBC, SBS)에서 방영된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및 일일 드라마 중 입양인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내용은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 실재와 관련된 특성, 입양가족의 이미지, 입양인의 특성 및 이미지 등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관련 특성으로는 입양절차와 입양 공개여부, 입양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절차는 독립(사적)입양이 공식입양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 형태의 입양이 포함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들로 하여금 입양을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인들의 필요에 의해 함부로 아동을 이용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로 오해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 한편 입양 공개는 본인이 입양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했으나, 대부분 입양아 자신이 본인의 입양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신들의 만찬, 황금물고기, 태양의 여자, 상두야 학교가자 등)라서 이것이 공개입양이 증가하는 국내의

입양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이 입양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친생부모의 죽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아동의 절대적 다수가 미혼모(부) 자녀라는 국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이러한 TV 드라마의 입양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입양 아동들은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양되었다는 왜곡된 인식을 아동 자신에게나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쉽다. 이처럼 가족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입양은 미디어를 통해 종종 기이하고, 비도덕적이거나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유기 또는 불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려진다(Waggenspack, 1998).

둘째, 입양가정의 모습은 갈등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특히 극 중 전개과정에서 파양이 발생하는 드라마의 경우, 현행법과는 달리 아동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쉽게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입양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상에서 입양가정 내에 친생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과반수 이상이었고, 친생자녀가 없는 사례들 중에서도 일부는 원래 친생자녀가 있었으나 사망한 경우이다. 이는 2012년 현재 국내 입양가정 중 유자녀 가정의 입양이 약 38.0%를 차지(보건복지부, 2013)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인데, 아마도 드라마 상에서 형제간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가정 내 친생자녀가 자주 등장하는 듯하다. 또한 친생자녀가 사망하고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죽은(또는 죽

있다고 생각하는) 친생자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 또한 입양은 입양부모의 필요뿐만 아니라 요보호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실체의 균형적 모습을 잘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입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아동의 앞날을 위해서 입양한 아동복지적 동기보다는 다른 이유(가족유지, 불임해결, 친생부모 지원의 수단 및 목적)로 입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입양의 일방적인 취지만을 편중해서 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상으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입양인의 직업이나 학력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과 그와 대조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인물들로 양극화되어 그려지고 있었다.

입양인의 성품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나타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어둡고 비관적이거나, 냉철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성격 등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입양인의 삶의 여정은 대체로 순탄치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처럼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는 독립(사적)입양, 비밀입양 등 바람직한 입양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극적인 재미와 반전을 위해 입양자녀와 친생자녀와의 갈등, 입양인의 순탄하지 못한 삶 등을 그리고 있어, 대중들에게 입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양부모가 입양을 하는

동기도 아동복지적 동기가 아닌 부모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한 것(불임, 가족유지의 수단, 친생부모와의 관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입양부모의 약 60%가 불임부부인 것은 하나, 입양의 동기 자체가 부모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치우쳐 그려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미디어에 나타난 입양관련 이미지가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실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서 그리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부정적인지를 주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차이를 갖는다. 한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관련 이미지가 입양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입양부모들과 입양전문가들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양가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나, 실상 대다수의 대중들은 TV 드라마를 통해 입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것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켜, 국내 입양가족과 입양아들에게,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 속에서 입양가족과 입양인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주 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행복한 입양가족, 잘 성장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모습이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가족 스스로가 입양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더라

도, 사회가 그것을 차선(second best)으로 인식하는 한, 입양과 연관된 수치와 비밀성을 사라지지 않는다(Greedy, 2001).

실제로 TV 속에서 특정집단(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다루는 방식은 일반대중이 특정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최이정, 2009; 황인성, 1999), 동일한 현상이라도 TV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요 TV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입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드라마 작가나 제작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입양이 갖는 의미나, 입양가족 또는 입양인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입양을 ‘출생의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와 연관시켜 사용하며, 드라마가 입양아동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듯하다. 따라서 입양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 미리부터 제작진에게 입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입양 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룰 때에는 그것이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국내의 입양관련 연구에도 함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국내입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입양의 당사자인 입양 부모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인간은 가족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입양가족의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가족 및 부모의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연구 또한 그러한 차원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방영된 드라마 중 입양인을 주요 인물로 하는 드라마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자 폭넓게 검색하였으나 해당 드라마의 모집단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드라마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드라마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구기간 이후에 방영된 최근 드라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방영된 입양관련 드라마들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양적 내용분석의 특성상 대략적인 그림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각각의 드라마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입양인이 주인공일 뿐 아니라 입양을 주요 소재로 다룬 몇몇 드라마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TV 드라마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입양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찍이 입양과 관련된 TV 뉴스(Kline, Karel, & Chatterjee, 2006)나 입양관련 신문기사(Gresham, 2009)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방영된 입양관련 드라마들을 폭넓게 포함시켜, 양적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입양과 관련된 주요한 이미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애, 길민지, 김정현, 박옥경, 서민정, 유현정, . . . 천기운 (2009). 미국 의학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이미지와 역할수행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43(1), 1-16.
-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태순, 허남순, 권지성 (2006).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연구발표 세미나. 과천: 한국입양홍보회.
- 보건복지부 (2008a). 입양현황(2007.12.31.)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12년 3월 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08b). 요보호아동현황(2007. 12. 31.).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12년 3월 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3). 2012년 국내외입양현황 통계.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1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0&page=1에서 201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4b). 2013년 국내외입양현황.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14년 9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4c). 2013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14년 9월 10일 인출
- 양문희, 강형철 (2005). 텔레비전 드라마의 직장 내 여성 관리자 및 경영자 묘사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5), 95-124.
- 연합뉴스 (2004.8.26.). ‘왕꽃선녀님’ 입양인 인격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744121>에서 2012년 3월 2일 인출
- 이재협 (2010). 한국의 법률직 TV 드라마에 나타난 법의식과 법률가의 이미지 - <애드버킷>에서 <검사 프린세스>까지. *서울대학교 法學*, 51(3), 357-410.
- 이정교, 서영남, 최수진 (2007). 케이블텔레비전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65, 249-281.

- 이현숙, 조형숙 (2008). TV 드라마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이미지. *어린이미디어연구*, 7(2), 57-85.
-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간호과학*, 7, 64-83.
- 전성희 (2011). TV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와 노년에 대한 인식. *드라마연구*, 35, 55-86.
- 정용주, 김한배 (2010). 일반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2010년도 한국거버넌스 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6).
- 정해린, 안은미, 최혜림, 정익중 (2012).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 *한국아동복지학*, 39, 69-92.
-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11). 국내입양아동의 입양됨에 대한 인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8(4), 169-182.
- 최이정 (2009). 장애인 관련 TV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정보연구*, 46(2), 67-99.
- 최혜순, 남효순 (2011).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3), 123-149.
- 한균태, 서영남, 최수진 (2007). 포르노마(Pornoma): 공중파와 케이블 자체제작 드라마의 선정성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3), 253-282.
- 한균태, 하승태, 서영남, 조의현 (2007).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한국방송학보*, 21(1), 311-351.
- 허숙민, 박진화, 김문수 (2012). TV 드라마 속 장애인 이미지 분석 -장애이론 모델과 미디어 프레임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 1-22.
- 황인성 (1999). "텔레비전 영상 저널리즘 재현장치와 소외집단." *텔레비전 문화연구*. 서울: 한나래.
- Creedy, K. B. (2001). Community must unite if perception of adoption is to change. *Adoption Quarterly*, 4(3), 95-101.
- Creedy, K., & Saidman, S. (1999). Adoption community responds to skewed media coverage. *Adoption Quarterly*, 3(2), 103-107.
- Gresham, A. L. (2009). *Changes in media coverage of adoption: A content analysis comparing newspaper coverage from 1992 and 1997*.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Alabama.
- Kline, S. L., Karel, A. I., & Chatterjee, K. (2006). Covering adoption: General depictions in broadcast news. *Family Relations*, 55(4), 487-498.
- Waggenspack, B. M. (1998). The symbolic crises of adoption: Popular media's agenda setting. *Adoption Quarterly*, 1(4), 57-82.

1 차원고접수 : 2015. 01. 07.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5. 03. 13.

A Study on the Images of Adoptees in Korean Television Dramas

Ahn, Jae-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ages of adoptees and their families in South Korean television dramas. Twenty-eight adopte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from twenty-four television dramas (2000-2012) aired by th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i.e., KBS, MBC, and SBS).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doption, images of adoptive families and adoptees appearing in the television dramas were content-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elevision dramas portrayed domestic adoption in biased ways - there were more private adoptions and secrecy in adoption practices and more negative outcomes of adoption such as conflicts between birth child and adoptee, and stressful life experiences of the adoptees. Also the motive for adoption was mainly for adoptive parents themselves rather than for the adoptees, distorting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adoption as a child welfare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to build up a television monitoring system were made to improve the images of adoption, adoptees and adoptive families in the mass media in more positive ways.

Keywords: adoption, TV drama, adoption image, adoption related characteristics, content analysis